

제18263호 2판
2009년 1월 10일 토요일

알고 보면 적당히 수줍은 '보통 여자'

■ 주말극 '가문의 영광' 터프한 캔디 마야



“요즘 사람들이 저보고 ‘나경장!’, ‘말순아!’라고 불러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더 좋아요.”



시청률 25%를 넘어선 SBS TV 주말극 '가문의 영광'에서 최고 인기 커플은 나말순-하태영 커플이다. 첩부지들끼리 티격태격하는 듯 하면서 어느새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둘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며 이 드라마의 시청률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나말순 역을 맡아 4년 만에 드라마에 컴백한 가수 마야(34)는 그래서 요즘 기분이 너무 좋다.

말순이는 한마디로 '터프한 캔디'다. 씩씩한 교통순경으로 그들이 없어도 되는 사실은 집안의 가장인 그는 부모와 동생들 뒤처다끼리를 하느라 허리가 된다. 짧고 경쾌한 헤어스타일, 터프한 말투, 맑고 푹부러지는 얼굴의 마야는 그런 말순이를 맡아 신나게 연기를 하고 있다.

“제가 평소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데 ‘가문의 영광’ 오디션 때도 바이크를 타고 가 헬멧을 벗어두고 오디션 현장에 들어갔더니 PD님과 작가가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바로 저 모습이야!’라고 하시더군요. (웃음) 제가 가장은 아니지만 1남4녀 중 넷째로 제 아래가 남동생인 것은 극중 말순이 처한 현실과 비슷해요. 어린시절 아들만을 외치던 집안에서 남자라면 치를 떨면서 자랐고, 그 속에서 ‘난 남자처럼 여세야 해’라고 다짐했거든요.”

말순이의 버거운 현실은 요즘 부자집의 첩부지, 사고뭉치 둘째 아들인 태영(김성민 분)과 엮이면서 알콩달콩한 멜로로 덧씌워지고 있다. “얼마 전에 드디어 키스신까지 찍었어요. 과연 이 무식한 두 인간에게서 아기자기한 모습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를 놓고 작가가님이 무척 고민하고 계세요. 기분을 짜내듯이 어렵게 어렵게 짜내고 계세요. (웃음) 키스도 제가 먼저 뽀얏고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답살 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과정이 설득력있게 펼쳐진다는 것이 우리 드라마의 환인 것 같아요.”

서울에대 연극과를 졸업한 마야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를 꿈꿨다. 연기 경력이라고는 2003년 KBS 2TV '보디가드'와 2004년 SBS TV '매직'이 전부지만 늘 연기를 생각하며 꿈꿔왔다는 점에서 그는 가수로서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자신의 반쪽을 찾은 느낌을 받는다.

그는 “연기와 가수 둘 다 소중하고 너무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면서 “다만 그동안은 가수에 전념해왔다면 요새는 연기에 꼭 빠져 지내고 있다. 특히나 말순이가 사랑에 빠져 내가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며 웃었다.

그렇다면 실제의 마야는 정말 터프할까. “제 안에 수줍은 송혜교가 있죠”라며 웃은 마야는 “사실 산악자전거를 타는 등 험한 운동을 좋아해서 손에 흉터가 가시 날이 없다. 그래서 순간 퍼먼 참피하다. 하지만 나도 적당히 수줍음이 있는 보통 여자”라고 말했다.

1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쌍화점	74만5천461	151만5천562
2	과속스캔들	50만9천879	514만7천163
3	볼트	23만8천562	42만2천908
4	예스맨	15만7천162	105만1천382
5	버락 위기의 포노	15만6천452	135만1천484
6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3만6천498	130만1천3
7	지구가 멈추는 날	12만1천471	152만260
8	트와일라잇	2만5천180	133만3천195
9	오스트레일리아	2만1천369	98만4천53
10	달콤한 거짓말	1만2천	18만5천478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너는 내운명	KBS1	37.7
2	MBC 연기대상	MBC	28.6
3	일요일이 좋다	SBS	27.4
4	이내의 유혹	SBS	27.0
5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6.1
6	유리의 성	SBS	23.4
7	천추태후	KBS2	22.1
8	개그콘서트	KBS2	22.0
9	SBS 방송연예대상	SBS	21.2
10	해피선데이	KBS2	20.7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액션
2	콩푸렌더	애니메이션
3	타이큰	액션
4	디크 나이트	액션
5	맘마미아!	뮤지컬
6	미이라 3:황제의 무덤	판타지
7	인디애나존스: 크리스탈헤울의 왕국	액션
8	강철중:공공의 적1-1	코미디
9	추격자	스릴러
10	윈티드	액션

(자료제공:음과비디오)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2	러브 119	케이윌
3	붉은 노을	빅뱅
4	프리터 걸	카라
5	매력쟁이	린
6	유 아 맨	SS501
7	마이 스텔	브라운아이즈걸스
8	노바디	원더걸스
9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
10	레이니즘	비

(자료제공:멜론)

7년 만에 가수활동 재개... 운상과 호흡

강수지



'보랏빛 향기'의 강수지가 싱어송라이터 운상과 소잡고 디지털 싱글 음반을 6일 발표했다. 2002년 정규 10집을 발표한 이후 7년 만의 활동 재개다.

강수지는 1990년 데뷔곡인 '보랏빛 향기'부터 '흩어진 나날들', '혼자만의 겨울', '시간 속의 향기', '필요한 건 시간일 뿐' 등 운상이 작곡한 노래를 불러 히트해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운상과는 1995년 첫번째 싱글음반 '포 유(FOR YOU)' 이후 13년 만의 작업이었다.

두번째 싱글음반인 신보에는 총 3곡이 수록됐다. '잊

라니'는 반도네오 연주를 삽입한 탱고 장르의 음악으로 강수지 특유의 감성적인 음색이 매력적이다. '길고 긴 하루'는 강수지의 음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운상 표' 발라드로 박창학 씨의 가사가 첫 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신세대 작곡가 최용찬의 곡인 '사랑할래'는 친구를 짝사랑하게 된 안타까움을 밝은 멜로디에 실어 표현했다.

강수지 측 관계자는 "1990년대를 함께 한 운상 씨와 다시 호흡을 맞춘 의미있는 음반이어서 활동에 대한 강수지 씨의 기대도 남다르다"고 말했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2200-511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이메일부 <팩스 222-8005>
정재부 2200-616 <팩스 222-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2-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문화홍보부 2200-541
사회2부 2200-619 <팩스 222-0195>
(팩스 227-0118) 독자서비스부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팩스 227-9500>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주소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항공 동상인물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773-9335

RADIO

1. **뉴스와 시사**
최신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2. **문화와 예술**
다양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3.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와 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가톨릭방송 신묘호선 뉴스

CBS

080-800-1031